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숯되다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숯되다 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숯되다

완성된 이름

숯되다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숯되다

한눈에 보는 기록

뜻

순진하고 어수룩하다.

요약 연대표

표기	16세기	19세기	20세기	현재
순도되다				
숯되다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순진하고 어수룩하다.

문헌의 첫 기록

16세기

수록 용례

5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3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숫되다'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순진하고 어수룩하다.



숫되다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숫되다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순도외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숫되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순도외- 문헌 수록 표기	—	●→	—	—	—	—
숫되-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순도외다
16세기
- 숫되다

↳ 솫되다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 옛 표기와 등장 시기

‘솫되-’의 옛말인 ‘술도외다’는 16세기부터 나타난다.

↳ 말의 구성과 어원

‘술도외-’는 더럽혀지지 않아 깨끗한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술’에 ‘되다’의 옛말 ‘도외-’가 결합한 것이다.

↘ 소리와 발음의 특징

19세기에 나타난 ‘솫되-’는 16세기에 종성 ‘ㄷ’과 ‘ㅅ’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게 된 이후에 표기가 섞여 쓰이면서 제1음절 ‘술’이 ‘솫’으로 나타나고, ‘도외-’의 제1음절과 제2음절과 제3음절이 축약된 ‘되-’로 변하여 현재까지 이어진다.

📖 문헌 속의 솫되다

전체 용례 5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6세기 술도외-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술도외-

출처 1576 신증유합 하:2

용례 01

66 문헌 용례

朴 순도월 박.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9세기 순도-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순도-

출처 1895 국한192

용례 02

66 문헌 용례

순되다 純專.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세기 순도-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순도-

출처 1926 동아일보 9월 5일 1면

용례 03

66 문헌 용례

순된 마음과 아울러 그 꽃다운 숨결로써 짜아 낸 비단 치마를.

현대어 풀이

순된 마음과 아울러 꽃다운 숨결로써 짜 낸 비단 치마를.

출처 1927 조선일보 8월 16일 5면

용례 04

66 문헌 용례

남도 통행하니 관계업스리라는 순된 생각으로 여전히 내려가지 안코.

현대어 풀이

남도 통행하니 관계없으리라는 순된 생각으로 여전히 내려가지 않고.

66 문헌 용례

이러게 맘퍼지 못하는 세월을 보내시는 왕은 마치 사나운 계모 미테 사는 며느리 모양으로 앓되고 슯된 기운이 살아지고 부자연하게 로성한 빛이 올랐다.

원) 현대어 풀이

이렇게 맘 퍼지 못하는 세월을 보내시는 왕은 마치 사나운 계모 밑에 사는 며느리 모양으로 앓되고 슯된 기운이 사라지고 부자연하게 노성한 빛이 올랐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스되다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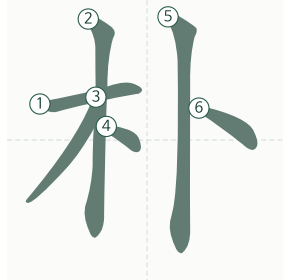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스되다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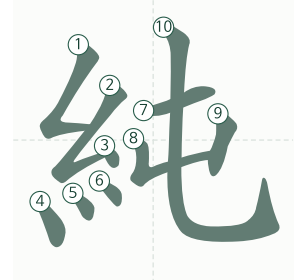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朴 뜻·음 성(姓) 박
총 6획 · 부수 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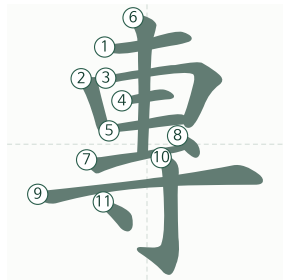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朴/

純 뜻·음 순수할 순
총 10획 · 부수 糸



hanja.wordrow.kr/한자/純/

專 뜻·음 오로지 전
총 11획 · 부수 寸



hanja.wordrow.kr/한자/專/